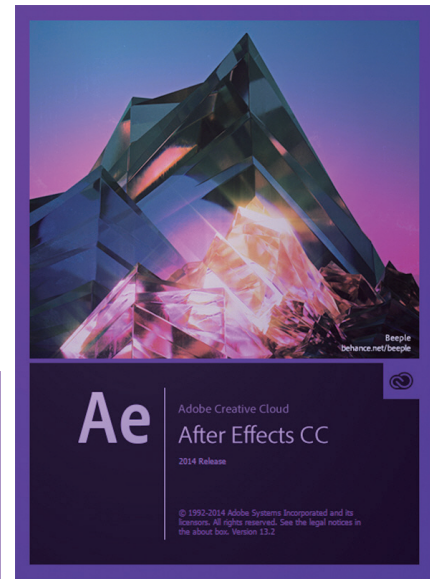


Adobe After Effects CC 2014 tutorial - 1

신종윤 프리랜서 / 유크리에이티브의 애프터이펙트 CS6 워크플로우 저자
저자 홈페이지 : ae1mide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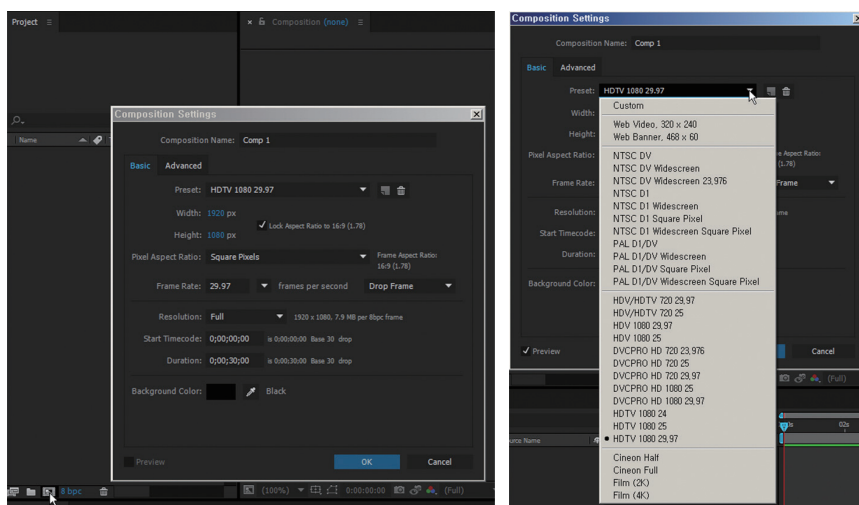


After Effects CC 2014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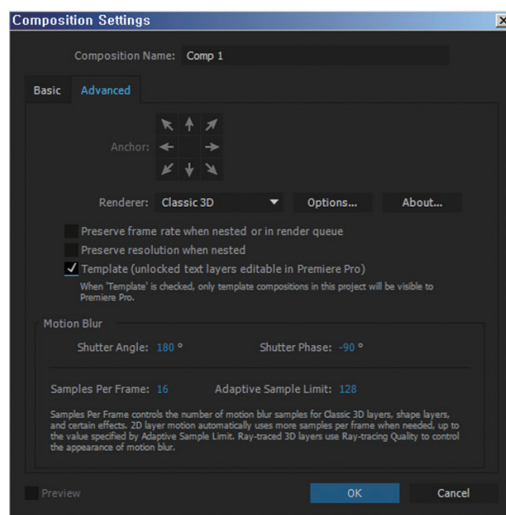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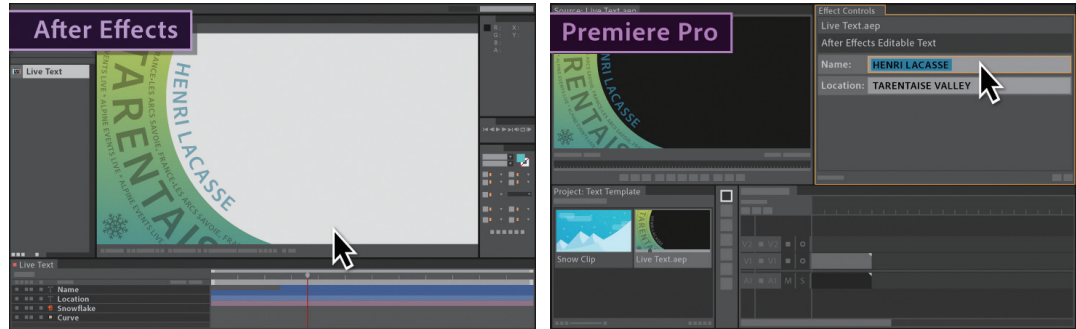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의 비디오 제품군 가운데 광고, 방송, 영화 등 다양한 제작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애프터이펙트는 UHD 제작에 맞추어 소스를 활용할 수 있는 Detail-Preserving Upscale, Mask Tracker, 텍스트 애니메이션을 프리미어 프로 CC에서 쉽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호환성을 가지고 있는 Live Text Template 기능 등의 업그레이드에 이어 NAB Show 2015에 소개된 이후, 적용한 이펙트나 기본 속성 값을 수정하더라도 실시간으로 프리뷰 할 수 있어서 타이틀이나 합성, 모션그래픽 등의 콘텐츠 제작이 보다 편리해졌습니다.

After Effects CC 2014 기능

애프터이펙트는 NLE 편집 프로그램인 프리미어 프로와 달리 File 메뉴가 아닌 **Composition 메뉴의 New Composition**으로 새로운 컴포지션을 만들어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Project 패널 하단에 있는 **Create a new composition** 아이콘을 클릭하면 **Composition Settings** 창을 빠르게 활성화 시켜 새로운 컴포지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Composition Settings의 Basic 탭에서 먼저 Preset으로 HD 등의 포맷을 선택한 다음 Pixel Aspect Ratio, Frame Rate를 설정하고, **프리미어 프로와 달리 Duration** 부분에 사용자가 직접 작업할 시간을 입력하여 설정해야 합니다.



Composition Settings 창 Advanced 탭에는 CC 2014 버전부터 새롭게 Template 항목이 추가되어 애프터이펙트에서 작업한 텍스트 애니메이션 템플릿에 대해 애프터이펙트를 실행하지 않아도 프리미어 프로 CC 2014에서 직접 수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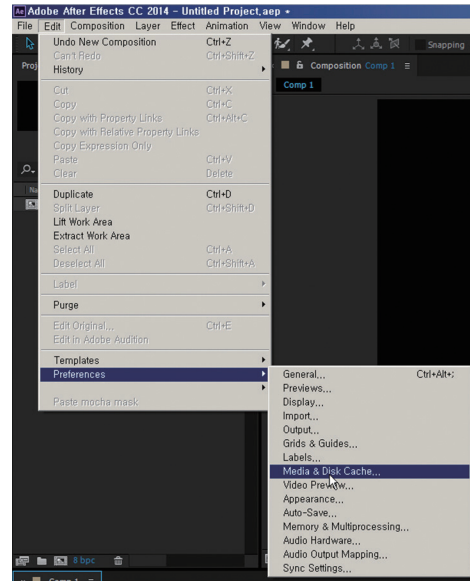


애프터이펙트 CC 2014 실행 없이 텍스트의 내용을 쉽게 수정할 수 있도록 하려면 반드시 Advanced 탭에 있는 Template 항목을 체크하고 텍스트 애니메이션 템플릿 작업해서 저장해 놓아야 됩니다.

작업하려는 포맷과 시간에 대한 기본적인 컴포지션 설정을 마치면 파일을 불러 들이는 Project 패널에는 컴포지션 파일이 만들어 지게 되고, 작업 진행과 결과물이 보여지는 Composition 패널과 포토샵 레이어처럼 상위에 위치한 파일이 컴포지션 패널 화면에 보여지면서 작업이 진행되는 Timeline 패널의 워크스페이스가 활성화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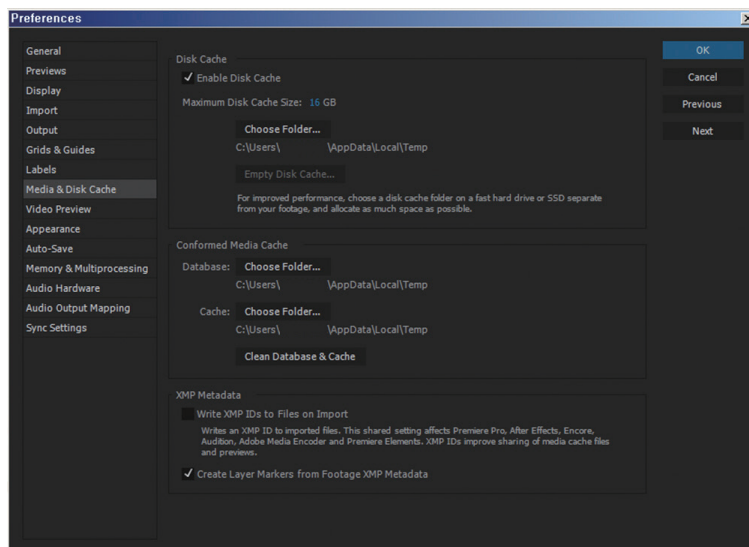
퍼포먼스 향상을 위한 환경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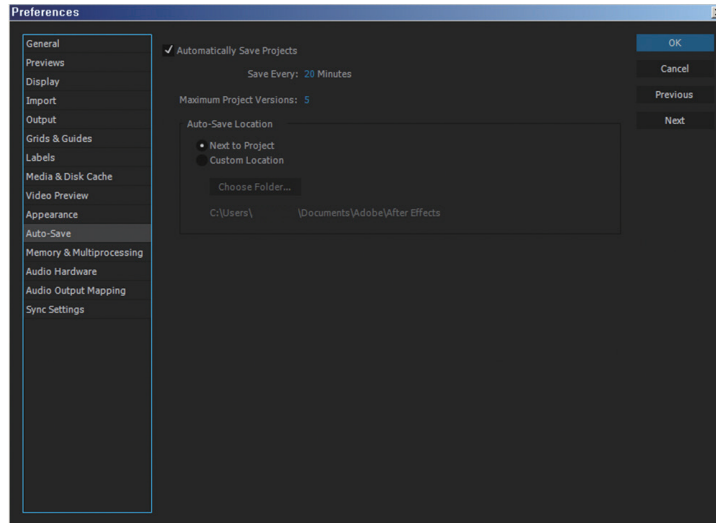
4K 제작 환경에 맞추어 애프터이펙트뿐만 아니라 하드웨어적인 시스템 사양도 나날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애프터이펙트를 통해 작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Edit 메뉴의 Preferences에서 제공되는 몇 가지 항목만 설정해 놓으면 원활한 작업과 함께 퍼포먼스가 향상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Media & Disk Cache

Media & Disk Cache 탭에서는 Disk Cache에 비활성화 되어 있는 **Enable Disk Cache**를 체크합니다. Choose Folder 버튼을 클릭하여 OS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으로, 속도가 빠른 SSD나 HDD에 폴더를 만들어 선택해 놓은 다음 **Maximum Disk Cache Size**의 값을 설정해 놓습니다. OS가 설치되어 있는 경로로 기본 설정되어 있는 Conformed Media Cache의 Database와 Cache의 경로도 Disk Cache처럼 저장되는 경로를 바꾸어 놓습니다.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로로 오랜 시간 작업하게 되면 OS가 설치된 HDD의 용량이 모르는 사이에 줄어들어 OS 뿐만 아니라 애프터이펙트로 작업한 것에 대한 프리뷰 및 렌더링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Empty Disk Cache와 Clean Database & Cache를 클릭하여 비워주는 것도 퍼포먼스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Auto-Sa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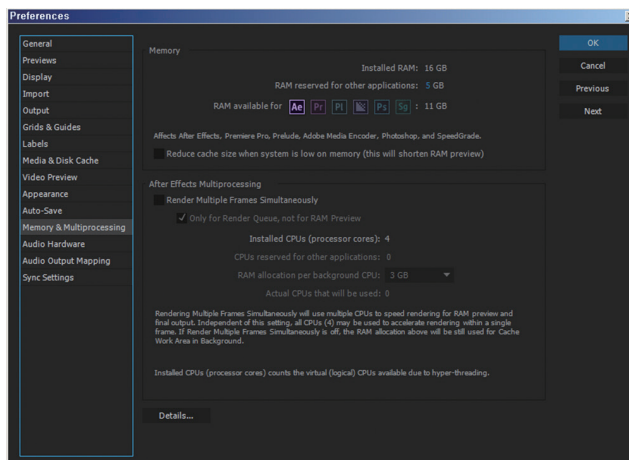


애프터이펙트 CC 2014 버전부터 Auto-Save의 Automatically Save Projects는 기본값으로 체크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저장되는 경로는 OS가 설치된 HDD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작업 전에 저장되는 경로를 설정해 놓도록 합니다. Automatically Save Projects가 기본으로 체크되어 있으면 설정한 시간 단위로 프로젝트가 Maximum Project Version에 입력된 값만큼 자동으로 저장되어 편리하지만, 모든 프로그램을 공통적으로 저장할 때 사용되는 단축키인 **Ctrl키와 S키를 함께 눌러 틸름이 저장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합니다.

Memory & Multiprocess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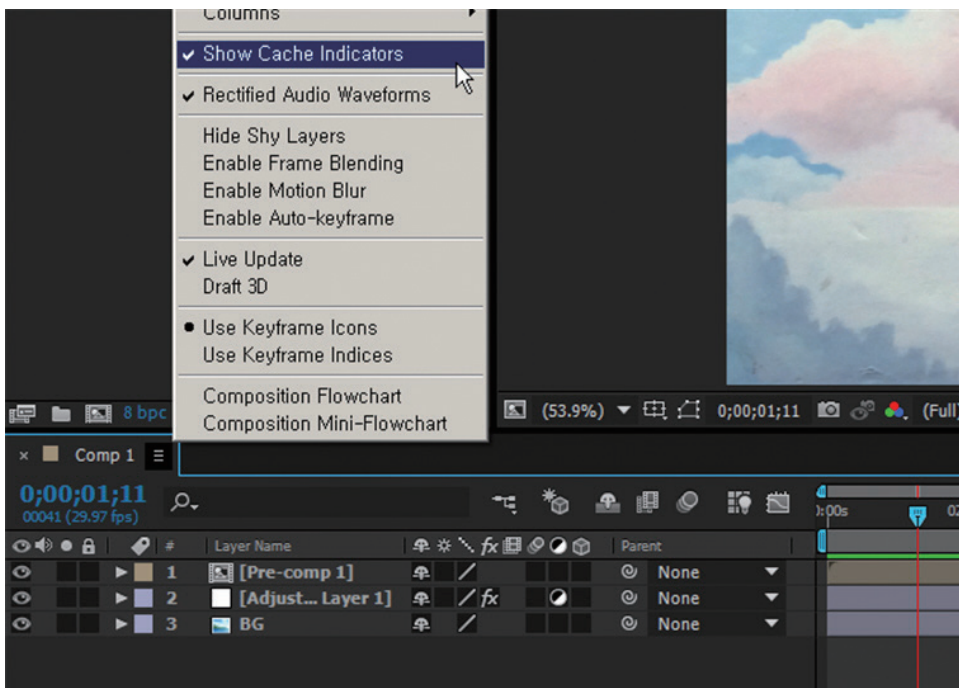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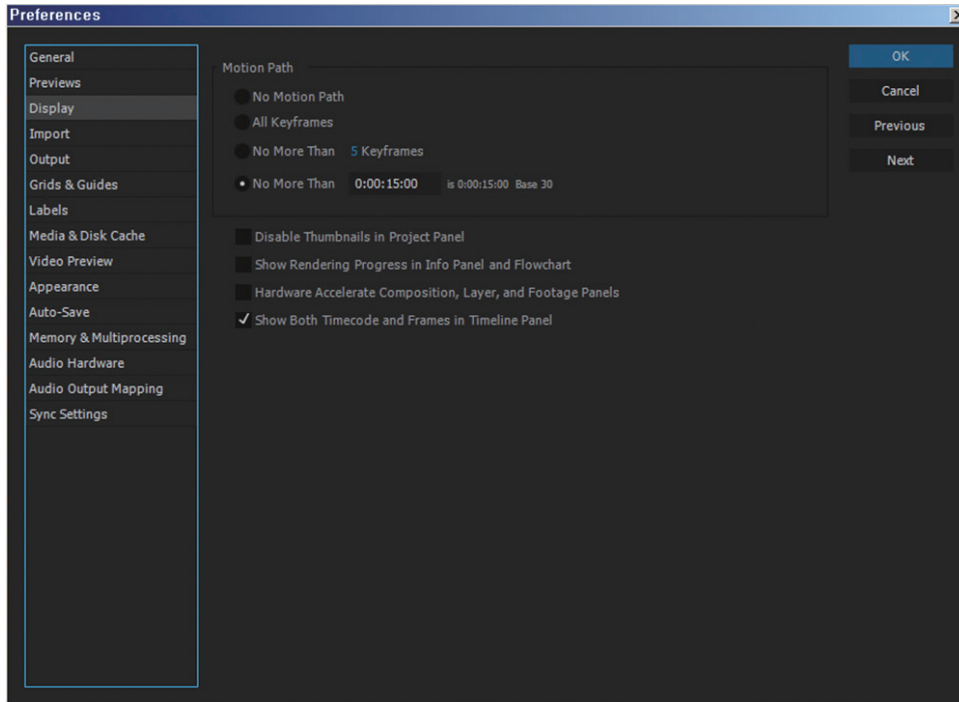
애프터이펙트는 시스템의 CPU 사양 못지 않게 렌더링 및 프리뷰 성능 향상에 있어서 그래픽 카드의 GPU 성능도 중요하게 되었습니다만, Memory & Multiprocessing 탭 **Memory** 항목에서 애프터이펙트가 사용할 메모리량을 설정해 놓도록 합니다. 포토샵이나 프리미어 프로 등 기타 다른 프로그램 사용을 고려하여 RAM reserved for other applications에서 값을 조절하면 애프터이펙트에 할당된 메모리 용량이 RAM available for 부분에 표시됩니다.

After Effects Multiprocessing에서는 CPU에 할당될 메모리 용량을 RAM allocation per background CPU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멀티프로세서의 시스템이라면 **CPU의 코어가 아무리 많아도 시스템의 RAM 용량이 부족할 경우 멀티 프로세서의 성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습니다.** 멀티프로세서 시스템이라면 메인 보드가 지원하는 범위까지 메모리 용량을 늘리는 것도 성능 향상을 위해 검토해 볼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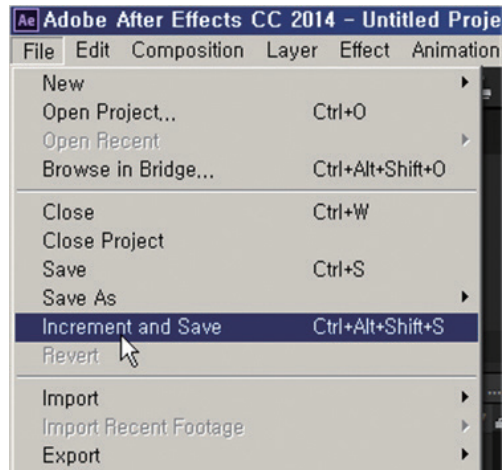


기타 성능 향상을 위한 환경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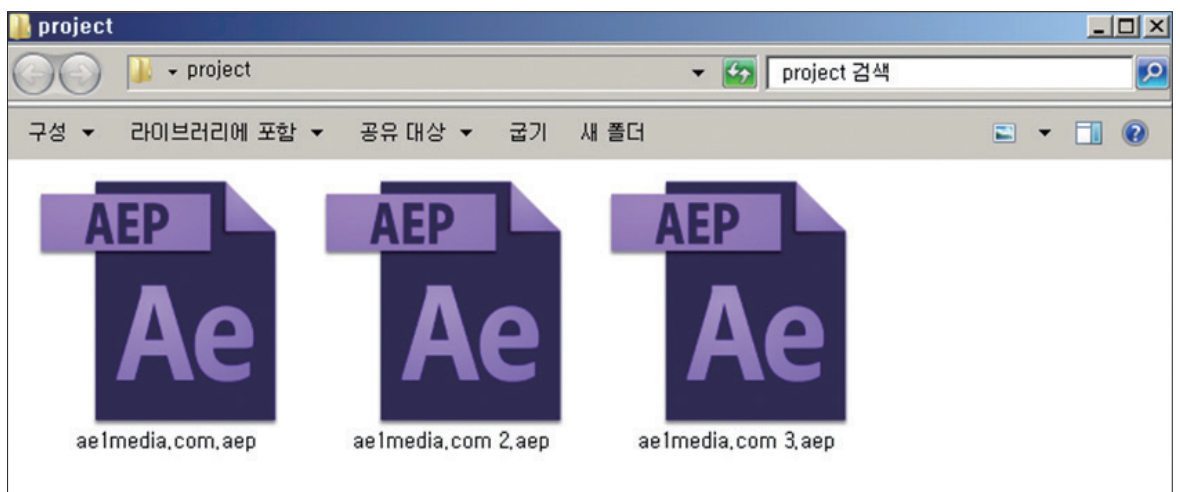
Preferences의 Display에서 프로젝트 패널에 불러 들인 فوت지(소스)의 썸네일을 비활성화 시키는 Disable Thumbnails in Project Panel과 Hardware Accelerate Composition, layer and Footage Panels의 사각 박스를 클릭하여 활성화시켜 놓는 것도 성능 향상에 조금이나 도움이 됩니다.



타임라인 패널에서 컴포지션의 우측 =부분을 클릭하면 팝업 메뉴가 활성화 됩니다. Show Cache Indicators 항목의 체크를 해제하면 램프리뷰 진행 사항이 표시되지 않아 불편함을 느낄 수 있겠지만, 퍼포먼스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애프터이펙트로 원활하게 고해상도의 작업을 하기 위해 반드시 시스템 성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 설정을 해 놓고, 마지막으로 File 메뉴에 있는 Increment and Save를 클릭하면 Save As로 저장하는 것보다 편리하게 프로젝트를 단계별로 저장해 놓을 수 있습니다.



Increment and Save는 먼저 프로젝트를 저장한 다음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실행할 때마다 사용자가 저장한 프로젝트 파일명 뒤에 자동으로 숫자가 증가되면서 저장이 되는데, 별도의 이름을 입력하여 저장하지 않는다면 Save As를 실행하여 창을 활성화시키고 저장하는 것 보다 편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프리미어 프로 CC 2014와의 호환성으로 텍스트 애니메이션 작업이 편리해지는 애프터이펙트 CC 2014의 Live Text 템플릿 기능을 바탕으로 성능 향상과 더불어 효율적인 작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애프터이펙트의 환경 설정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다음 호에서는 애프터이펙트의 기본 기능을 바탕으로 콘텐츠를 편리하게 제작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